

동일방직 사건과 1970년대 여성노동자, 그리고 지식

홍석률

1. 시작하며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은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가장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던 집단이었다. 1960년대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에 나섰을 때 핵심 수출 품목은 섬유직물, 의류, 가발, 신발 같은 경공업제품들이었다. 이는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 만들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되었지만, 1970년대의 마지막 해에도 주로 여성노동자들이 만드는 경공업제품과 전자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나 되었다.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규모 제조업체에서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에 61.8%였고, 1979년에는 56.9%였다.⁰⁰¹ 수출을 많이 하는 대규모 공장일수록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남성노동자가 아니라 여성노동자가 다수였다.

이처럼 경제개발에 큰 기여를 한 여성노동자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동일방직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한

‘나체시위’, ‘똥물세레’ 사건 등은 경제개발기 노동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방직 사건을 단순히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상징하는 사건으로만 말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이 사건은 당시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보여준 뛰어난 성취와 잠재적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동일방직 사건은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이것이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차원만이 아니라 더 큰 역사의 가능성도 보여준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다.

2. 동일방직 공장과 여성노동자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적인 노동탄압이 발생하였지만, 1970년대 당시 동일방직 인천공장은 노동자들이 선망하는 직장이었다. 여기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쫓겨난 여공들도 그곳은 깨끗하게 잘 가꾸어진 잔디밭이 있고, “오월이면 흰색 담을 빨강게 장미가 장식”하였고, 인천 만석동에서 “유일하게 꽃과 나무가 있는 곳”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기거하는 기숙사 시설도 다른 공장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다고 한다. 목욕탕과 신식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한 방에 4~5명씩 생활하였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충분한 공간으로 생각되었다. 기숙사에는 도서실도 있고, 음악 감상과 TV 시청이 가능한 시설도 있었다. 동일방직은 또한 상대적으로 월급이 괜찮은 회사였고, 3교대 근무가 정착되어 노동시간도 하루 8시간으로 정확한 편이었다.

동일방직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건과 환경이 좋은 공장이었지만, 그런 만큼 노동 강도는 센 편이었다고 한다.⁰⁰² 동일방직은 숨에서 실을 뽑아 면포

를 만들고, 기타 화학섬유제품을 만드는 회사였다. 이곳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이었고, 주로 방적과와 직포과에서 일했다. 방적은 솜뭉치가 실로 만들어지는 공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열이 발생하였다. 방적공장은 한겨울에도 25~26도를 오르내릴 정도로 더웠다. 여성노동자들은 더위와 열기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솜먼지가 눈, 코, 입에 달라붙어 숨쉬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일해야 했다. 반면 직포는 실로 옷감을 짜는 공정이다. 옷감은 물론 기계(방직기)가 짠다. 이곳에는 수천 대의 방직기들이 늘어서 있는데 그 소음이 엄청났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무 귀마개를 하고도 귀가 찢어질듯 아픈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직포과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임무는 방직기의 실이 엉키거나 끊어져 멈추면 재빨리 가서 이를 풀어주고 이어주어 기계를 재가동시키는 것이었다. 공장에 새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1분에 15회 정도 끊어진 실을 잇고, 1분에 140보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했다. 조장, 반장들이 스톱워치를 들고 이를 체크했다. 숙련공의 경우 한 사람이 40~50대의 방직기를 맡아 돌보았다고 한다.⁰⁰³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위로부터 아래로, 대리→담임→반장→조장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체계 속에서 일했다. 조장과 반장은 숙련된 생산직 노동자 중에 선발되었고, 그 위의 담임과 대리는 일종의 관리직이라 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남성들이 차지하였다. 동일방직에서는 일반 여공들도 유니폼을 입고 일하고, 조장, 반장의 경우 직위에 따라 장식과 복장이 달라졌다. 예컨대 조장의 경우 빨간 완장을 팔에 두르고 목에는 파란 호루라기를 걸고 다녔다. 여공들이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거나 동작이 굼뜨면 즉각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다. 군인들에게 계급장이 달리듯 여공들에게는 마크가 달려 있었다. 처음에는 훈련생 마크를 달고 있다가 훈련 기간이 끝나면 10이라는 숫자를 달았다고 한다. 이는 10급이라는 뜻이었는데 이후 경력이 쌓이면 9급, 8급, 7

급으로 승급하는 식이었다.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군대 비슷한 노무관리 아래서 1분에 140보씩 분주하게 움직이며 일하였던 것이다.⁰⁰⁴

이렇게 일했지만 여성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보답은 형편없었다. 동일방직이 다른 공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노동환경이 좋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당시 노동자들, 특히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임금이었다. 1980년 한국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44.5%에 불과했다. 남성들의 임금도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 반토막도 되지 않았다. 1970년대 말 남성노동자의 90% 정도가 1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았지만, 여성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5~6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⁰⁰⁵ 남녀 임금 격차는 1980년 ILO 통계가 있는 나라 중에 정확히 꼴찌였다. 심지어 당시 노동운동을 지원했던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일했던 조화순 목사도 여성이라서 그곳에서 일한 다른 남성 목사들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을 정도였다.⁰⁰⁶ 여성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 이들의 희생이 경제개발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3. 여성 지부장의 탄생

동일방직 인천공장에는 일찍부터 노조가 존재하였다. 박정희 정부기 한국의 모든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소속이었다. 복수노조는 금지되어 있었다. 전국적인 노동조합 연맹체인 한국노총 산하에는 섬유노조, 철도노조, 체신노조 등 각 산업별 노조가 있었다. 한편 산별노조 밑에는 각 공장을 단위로 만들어진 ‘지부’가 있었다. 인천 동일방직공장 노조의 경우 이러한 체계 아래서 한국노총 전국섬유노동조합 동일방직 지부가 되는 식이었다. 한국노총 중앙조직과 그 간부들은 출범부터 군사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

다. 한국노총과 그 산하 산별노조의 하부단위에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도 했지만, 그 조직의 핵심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친정부적이었고, 부패한 경우가 많았다.

동일방직 노조는 제도와 형식면에서는 민주적인 틀을 갖고 있었다. 매년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임기 3년의 노동조합 대표인 지부장을 뽑고 간부진을 구성했다. 그런데 동일방직공장은 종업원 80% 이상이 여성이었지만 노조 지부장은 항상 남성이었다. 이는 다른 공장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실 자체가 당시 노조가 실질적으로 다수 구성원의 동등하고 민주적인 참여 속에서 운영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1972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해 이 나라에서 처음 보통선거가 실시된 지 정확히 24년 만에 동일방직 노조 지부에서는 진짜 선거다운 선거가 치러졌던 모양이다. 이날 노조 정기대의원회에서 여성노동자 주길자가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신문에 날 만한 일이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한국노총 역사상 최초로 인천 동일방직 지부와 부산 '피복보세가공지부'에서 여성 지부장이 나왔음을 보도했다. 한국노총에 가입된 종합원은 49만 9천 7백여 명이고, 그중 여성이 12만 4천 5백여 명이었음에도 여성 지부장이 한국노총 역사상 이때야 최초로 나왔다니 놀라울 따름이다.⁰⁰⁷ 동일방직 노조가 효시가 되어 1974년에는 반도상사 부평공장 지부와 YH무역 지부에서 여성지부장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1977년 말에는 전국에 걸쳐 11개 노조, 56개 분회에서 여성이 지부장이나 분회장으로 선출되었다.⁰⁰⁸

이 무렵 동일방직을 비롯한 노조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기독교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도시산업선교회(이하 '산선')와 가톨릭노동청년회(JOC, 이하 '지오세') 등 노동자 선교단체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컸다. 특히 동일방직 여성노조지도부는 오랫동안 인천 산선과 관계를 맺어왔다. 산선은 애초 노동자

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단체였지만, 1960년대를 거치면서 단순한 개인적인 전도와 구원 차원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역할을 했다. 인천 산선의 여성 목사 조화순은 연수 차원에서 1966년 동일방직 노동자로 반 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어 일찍부터 이 공장과 인연을 맺어왔다.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은 인천 산선에서 당시 이른바 ‘클럽 활동’이라 불렀던 소그룹 활동을 했다. 이들 클럽은 보통 7~8명으로 구성되었고, ‘청조’, ‘햇불’, ‘넝쿨’, ‘해바라기’, ‘다이너마이트’, ‘백조’ 등의 고유한 클럽명(名)을 갖고 있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클럽의 회원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약간 궁금해진다. 클럽은 회원들이 직접 회장과 총무를 뽑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도 회원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하였다. 클럽의 활동 영역은 요리 만들기부터 노동관련법 학습까지 다양했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조직을 만들고, 이를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갔다. 동일방직의 여성노동자들은 클럽 활동을 통해 형제적인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여성노동자로서 자신의 처지와 이해관계를 자각할 수 있었다.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클럽에서 회장, 총무를 선거하듯 제대로 선거에 참여해 노조 대의원 41명 중 29명의 여성대의원을 선출했고, 그리하여 마침내 여성 지부장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⁰⁰⁹

4. 민주노조에 대한 노동탄압—‘나체시위’와 ‘똥물세레’

주길자 지부장은 전원 여성으로 노조 집행부를 구성했다. 여성 집행부는 과거의 집행부와는 달리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회사 측과 교섭하여 추석 상여금, 월차 및 생리휴가를 얻어냈다. 또한

둔탁한 무명 작업복을 더 산뜻한 데드롱 작업복으로 바꾸고, 기숙사에 온수가 나오게 하였으며, 전에는 3교대 근무 중에 식사시간도 따로 없었는데 30분 정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얻어냈다.⁰¹⁰ 동일방직 노조는 여성 지부장의 탄생 이래 회사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대변하는 노조가 되어갔다. 당시에는 동일방직 노조처럼 독자성과 민주성을 획득한 노조들을 정부와 회사 측의 통제와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타 노조와 대비시켜 ‘민주노조’라 칭했다. 1970년대에 ‘민주노조’는 동일방직 노조와 더불어 청계피복 노조, 반도상사 노조, YH무역 노조, 콘트롤데이타 노조, 원풍모방 노조, 삼성제약 노조 등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만 존재했다.⁰¹¹

회사 측이 ‘민주노조’를 그냥 둘 리는 없었다. 동일방직 회사는 1975년 2월 새로이 이영숙 지부장이 선출될 때부터 본격적으로 노조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1976년 2월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회사 측은 주로 남성노동자를 움직여 기존 여성 집행부를 와해시키려 했다. 대의원선거 결과 여성 집행부 측과 그 반대파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선출되었다. 집행부 반대파는 1976년 7월 23일 일방적으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기존 여성 집행부를 불신임하고,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노조 집행부를 만들려 했다. 그런데 이날 경찰은 갑자기 노조 지부장 이영숙을 연행해버렸다. 여성노동자들은 여기에 맞서 강당으로 달려와 항의농성을 전개하였고, 파업도 단행하였다. 당시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사실상 불법화되던 때였다. 7월 25일 경찰이 출동하여 농성장을 포위했고, 마침내 농성 중인 여성노동자들을 강제해산하였다. 7월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 농성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날 여성노동자들은 모두 옷통을 벗어 흔들며 노래를 부르면서 만나체 상태로 진압하는 경찰 및 회사 간부들에 맞섰다.⁰¹² 나체시위 사건 이후 여성 집행부를 시수하려는

쪽과 집행부 반대파 사이의 팽팽한 긴장관계가 계속되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노조 총무부장이었던 이충각이 새로이 지부장이 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아 여성 집행부를 지킬 수 있었다.

1978년 2월 21일에 다시 동일방직 노조 대의원선거가 열렸다. 특히 1978년은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해야 하는 해였다. 따라서 이 선거는 노조 집행부의 항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선거였다. 회사 측과 상급노조인 한국노총 섬유노조는 여성 노조 집행부를 와해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대의원선거 날 이충각 집행부는 분위기 자체가 대단히 험악했기에 경찰에 보호요청을 했고, 수명의 정사복 경찰관이 공장 안으로 들어와 선거를 지켜보았다. 오전 6시 교대시간부터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교대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공장에 모여들 무렵, 기존 집행부를 반대하는 일부 노동자들이 갑자기 드럼통에 똥을 한가득 퍼가지고 나타났다. 이들은 노조 간부들과 노조 활동에 열성적인 노동자들에게 달려가 똥을 던지고, 통째로 뒤집어씌우고, 비닐장갑 낀 손으로 똥을 집어 조합원들의 입과 젖가슴에 처넣는 등의 난동을 벌였다. 노조 간부들과 여성노동자들은 공장 안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야! 이 ○○야! 가만있어, 이따가 말릴 거야”라는 욕설뿐이었다. 한편 상급노조인 섬유노조에서 파견된 조직행동대 대원들도 노골적으로 집행부 반대파의 폭거를 돕는 쪽으로 행동하였다. 이것이 막 수출 100억 달러의 위업을 달성한 이듬해 1978년 대한민국 수출공장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은 공장 밖으로 나가 야만적인 폭거에 항의했다. 이들은 1978년 3월 10일 국무총리 참석하에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습적으로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유인물을 뿌리며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는 똥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행사는

TV와 라디오로 생중계 중이었는데, 이 때문에 방송이 3회나 중단되었다.⁰¹³

동일방직 여공들은 명동성당으로 들어가 농성을 전개했다. 일부는 인천 답동 천주교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다. 여공들은 단식농성을 전개했고, 당시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던 종교인, 해직교수, 지식인들도 ‘동일방직 사건 수습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들을 지원했다. 김수환 추기경과 강원룡 목사 등 종교계 지도자들이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및 회사 측과 협상을 벌였다. 협상 결과 1978년 2월 21일의 폭거 이전 상태로 환원하여, 노동자들은 복귀하고 추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통해 노조를 정상화할 것 등이 합의되었다. 이 소식에 노동자들은 농성을 풀었지만, 결국 이총각 등 조합 간부를 포함한 노동자 124명이 공장에서 해고되었다. 그 후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1980년대 초까지 줄기차게 복직투쟁을 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5. 박정희 독재정권과 여성노동자의 민주노조운동

동일방직의 비극은 왜 발생하였을까? 동일방직 노조운동을 지원했던 김동완 목사는 당시 이 사건을 박정희 독재정권과 섬유노조, 동일방직 회사의 3자 공모 속에 일어난 일이라 했다.⁰¹⁴ 그런데 3자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 것은 역시 국가권력이었다. 당시 국가권력은 단지 동일방직의 상급노조인 섬유노조 등 한국노총을 조종하고, 회사 측의 노동탄압을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차원에서 멀리서 동일방직 사태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당시 국가권력은 대단히 직접적으로 동일방직 공장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노조운동을 탄압했다. 1977년부터 중앙정보부 경기지부에서 노사 문제를 전담하던 최종선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섬유노조는 중앙정보부 경기

지부 차원이 아니라, 서울 본부 차원에서 지시와 조종을 받아 동일방직 지부를 탄압하는 일에 나섰다⁰¹⁵ 했다. 한편 최근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 과정에서 동일방직 사태와 관련된 중앙정보부 작성 문건이 공개된 바 있다. 1977년 4월 4일 대의원대회 회의록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총각과 인쇄소 대표가 나눈 대화를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이 탐지하여 보고한 문건이다. 여기에 따르면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된 이총각은 인쇄소 사장에게 “대의원대회 결과를 섬유노조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중앙정보부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총각은 노조원 회비를 과거에는 회사가 봉급 지급 때 일괄공제 해주었으나 최근에는 일괄공제를 중단했다면서, 이것 역시 “기관의 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⁰¹⁶ 당시 노조 간부들은 이렇듯 섬유노조와 회사의 배후에 국가권력이 대단히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식하고 있었다. 다만 국가권력에 직접 맞서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고, 이를 감당할 역량도 없었기에 중앙 국가권력의 개입 문제를 직접 거론하거나 쟁점화하지는 못하고, 주로 섬유노조와 그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이들에 대항하였던 것이다.⁰¹⁷

당시 국가권력은 세밀하게 축수를 뺏치고 있었고, 대단히 신경질적으로 동일방직 사태에 개입했다. 박정희 정부는 자율적인 민주노조가 공장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정권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1970년대 민주노조의 활동은 일반적인 노동운동을 분석하는 논리, 즉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구분하는 형식논리 같은 것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사실 동일방직의 여성 노조 집행부는 엄청난 탄압을 당했지만 임금인상 같은 경제투쟁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이들이 주력한 것은 여성 노동 집행부를 사수하여 노조를 진정으로 자주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해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조차도 중앙의 국가권력에 직접적으로 도전하

는 것이었고, 그러하기에 국가권력의 작용과 비호 속에서 이처럼 아주 비극적인 노동탄압을 받았던 것이다. 민주노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들의 의지나 선택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고, 정치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유신체제기 중에서도 가장 암흑기는 1975년 이른바 ‘월남폐망’과 ‘긴급조치 9호’의 발동 무렵이었다. 민주화운동은 이때 심각하게 위축되었다가 1977년에 조금씩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1978년과 1979년에는 크게 활성화되어 박정희 정권을 압박해갔다. 동일방직 노조의 투쟁은 1977년 이후 민주화운동이 다시 활성화되는 맥락에서 존재했고,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이끌어냄으로써 민주화운동을 전반적으로 고양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당시 경제개발 과정에서 가장 천대받던 여성노동자의 민주노조운동은 박정희 정권의 붕괴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1979년 여름 YH 노조의 여성노동자들이 야당인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다가 무참히 강제진압을 당하였다. 이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야당 지도자 김영삼의 국회 제명이 있었고, 이는 부마항쟁을 촉발시켰으며, 이 항쟁은 박정희 암살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6. 여성노동자와 지식

동일방직 민주노조운동의 의미는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차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은 소외된, 밑바닥에 위치한 사람들이 능동적인 역사의 주체가 되어 더 근본적인 인간해방을 이룩할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동일방직 노조에서 활동했던 여성노동자들은 많은 글을 남겼다. 1978년

12월부터는 복직투쟁을 하면서 해고된 노조원들의 글을 모아 월간 『동지회보』를 발행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각종 수기, 회고록 등을 많이 남겼다. 이 글들을 읽다 보면 일단 그녀들이 도달한 지적 성취에 놀라고, 한편 그녀들이 보여준 지식 그 자체에 대한 열망과 애정에 놀란다.

동일방직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잠재적 능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활동을 했다. 특히 산선 등 노동자 선교단체가 주관한 클럽 활동은 여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클럽 활동은 참으로 다양했다. 처음에는 꽃꽂이, 요리강습 등을 했는데 자장면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성경공부를 할 때도 있었고, 신문과 책을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한문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모임들은 노동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상호 토론하거나 근로기준법 등을 공부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⁰¹⁸

동일방직 노조의 여성 집행부는 노조원 교육을 중시했다. 주길자는 지부장으로 처음 선출되었을 때 신문 인터뷰를 통해 임금상승 문제와 조합원의 교육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⁰¹⁹ 이영숙 지부장도 노조원 교육을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30명씩 노조원을 지부 사무실에 모아놓고, 2시간 정도씩 노동조합의 목적,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법, 조합원의 자세와 의무와 권리, 가족계획, 공동생활인의 태도에 대해 직접 교육을 시켰다. 동일방직 노조 간부들은 외부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 연구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⁰²⁰

동일방직의 여공들은 노동 선교단체에서 하는 클럽 활동과는 별도로 공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소그룹을 만들어 활동했다. 이 중에는 주변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는 그룹도 있었고, 10명 안팎으로 비밀리에 모임을 갖는 소그룹 활동도 있어 “노동자들의 현실을 깨달을 수 있는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현장 내의 문제들을 찾아내었다”고 한다.⁰²¹ 동일

방식과 더불어 1970년대 대표적인 민주노조의 하나였던 원풍모방 노조의 경우도 노조 내에 50~60개의 소모임이 있었고, 대의원 교육, 중견간부 교육, 일반조합원 교육, 크리스찬아카데미가 주관하는 교육 등 수많은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다고 한다.⁰²²

동일방직의 여성노동자들 일부는 개인적으로도 틈틈이 책을 보는 생활을 했다. 이 공장 기숙사 1층에는 도서관이 마련되어 여러 책들을 비치하고 있었다. 석정남은 그곳에서 하이네의 낭만시나 김소월과 윤동주의 시집을 읽었다. 또한 그녀는 일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도 했으며, 신문을 읽기 위해 한자 공부도 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랏일까지도 걱정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편 추송례는 세계노동운동사 등의 책을 보기도 했고, 전태일의 노트 복사본을 얻어 몰래 읽기도 했다.⁰²³

김정일은 일찍이 여성노동자들이 추구한 지식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그는 여성노동자들이 추구했던 지식을 “출세의 지식”과 “해방의 지식”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여성노동자들이 처음에는 공장 주변의 학원이나 야학 등을 기웃거리며 노동자의 처지에서 벗어나 신분상승을 꿈꾸는 지식(출세의 지식)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허망한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차별을 자각하고 여기에 대항하는 실천과 해방을 꿈꾸는 지식(해방의 지식)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이다.⁰²⁴

그런데 당시 노동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지식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사고했던 것 같지는 않다.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산업체 부설학교 등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배우는 것이나 산선이나 노조에서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운동에 대해 배우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모두 자신들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수용하였다.

후일 노조 지도자로 구로동맹파업(1985)을 이끌었던 윤혜련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으로 가 ‘시다’가 되었다. 그녀는 1970년대 말 산업체 부설 특별학교를 다녔는데, 후일 “박정희 군사정권에 딱 한 가지 고마운 것은 그 시절 산업체에 특별학교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산업체 부설 특별학교는 각 산업체에 특별 야간학교를 만들어 노동자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게 만든 제도였다. 윤희련은 산업체 부설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공부했고, 그 후 방송통신고등학교도 졸업했으며, 그 학력으로 가리봉 전자에 입사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노조 간부가 되어 활동했던 것이다.⁰²⁵

청계피복 노조가 결성된 직후 노조 여성부장이었던 정인숙은 노조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자를 10명에서 15명씩 모아 소규모 모임을 꾸려 활동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이러한 소규모 모임의 체계를 ‘아카시아회’라 불렀다. 1971년 아카시아회는 500명이 넘는 시다를 초대하여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고 한다. 이때 아카시아회 회원들은 시다들에게 노조에 가장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고, 이때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이 중등 교육과정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노조는 6개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는데, 이후 정인숙은 모범 여성노동자로 뽑혀 청와대로 가서 당시 영부인 육영수를 만났다고 한다. 육 여사는 아카시아회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고, 그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중앙정보부 등이 움직여 고용주들이 동화시장 내에 노동교실을 여는 데 협조하도록 종용했다. 또한 외국 노동단체도 지원을 해서 1973년 5월 마침내 노동교실 개관식을 개최하였고, 원래 여기에 영부인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영부인의 참여는 무산되었다. 노조 측에서 재야 민주화운동가 함석헌도 같이 개관식에 초청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국가권력은 정말 신경질적이었다. 개관 직후 노동교실은 중정의 명령에 따라 문을 닫았다. 그러나 청계피복 노조는 1975년 4월 노동교실을 다

시 개관했고, 여기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의 학과 공부, 섬유와 의류를 만드는 실무기술, 노동법 등의 정치교육, 자신감을 키우는 법 등등 모든 것을 함께 가르쳤다고 한다.⁰²⁶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으로서 자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고, 자신과 사회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신이 겪고 감당해야 하는 제반 현실들이 과연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하기에 일반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과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는 과정은 함께 진행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은 단지 어떤 특정한 분야로, 또한 실용을 위한 수단으로 한정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넓고, 다양하고, 일반적인 지식(*general knowledge*, 또한 ‘총체적 지식’이라 고도 한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도 필요하고, 노동법 교육도 필요했던 것이다. 석정남은 1981년 복직 투쟁 중 『동지회보』에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또한 사람이란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확신에 도달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무식은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며 스스로 자기 능력의 한계에 의한 좌절 상태에서는 포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정말 이러한 일이 왜 필요한가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나는 상당한 노력은 하였으나 여건이 어려운 탓인지, 참으로 마음과 뜻대로 되지지지 않았다.⁰²⁷

전반적인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면서, 자신의 일과 세상에 대해 어떤 신념과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다양한 차원에서 자신과 세상

을 둘러보며 알아 나가는 것, 세상이 변화해가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 그 속에서 자신과 세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어떤 방향감과 신념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역사의식’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7. 맺음말—똥과 지식

석정남도 인정했듯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지식을 획득해가고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았다.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활동 과정에서 산선 등에 있는 지식인 활동가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자신들과 지식인 활동가의 처지가 다르며, 계속 의존할 수는 없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은 산선의 조화순 목사에게도 그녀가 자신들을 한편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한편 노조 지부장 이충각은 복직 투쟁 과정에서 조화순에게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라는 것 때문에 대우 받는다. 우리만큼 매를 맞느냐? 안 맞는다. 우리는 해고됐지만 목사님은 감옥 간 것 때문에 열광의 별이 되고 목사직을 계속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며 서로 끌어안고 운 일이 있다고 회고했다.⁰²⁸ 여성노동자와 산선의 지식인 활동가 사이에도 어쩔 수 없이 가로놓인 경계가 존재했고,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석정남은 언젠가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극복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검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참여한다면 그때야말로 완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웃음) 그때는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가 길러내고 우리가 기른 지도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교육도 시키

는 거야. 조합비 걷어서 뭐해? 교육시키고 공부시켜서 투자한 만큼 본전 빼는 거지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쓰러지고 고통당하는 것도 선배들의 밑거름이 없었기 때문이야.⁰²⁹

현재까지 한국의 노동운동이 얼마나 자체적으로 지도자도 키우고, 교육시키고, 공부시키는 일을 해왔는지, 여기에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와 의미를 두었는지, 석정남이 갈망했던 선배들의 밑거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그런 맥락에서 석정남은 노동자들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했던 지난날들의 생활”을 저주스럽게 생각하며, 노동자들도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추송례는 노동자들이 글을 써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약자일수록 글을 써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글을 써야만 자기 삶도 바꿀 수 있고요. 글을 써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떤 상태인지, 끊임없이 보여줘야 해요. 투쟁은 한계가 있지만 글은 한계가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무기입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소리 지를 수는 없지만 한 번 쓴 글은 영원한 목소리로 소리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린 글을 써야 합니다. 특히 일하는 사람이 글을 써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⁰³⁰

추송례는 자신의 동일방직 활동의 경험을 수기로 써서 전태일 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위의 글들을 읽으면서 필자는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똥물 세례를 받은 이

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똥물 세레라는 동일방직의 비극은 물론 엄청나고 유례가 없는 폭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나 그 폭력의 방식은 때리거나, 피 흘리게 하는 물리적·신체적 파괴성이 두드러진 것이 아니라 인격에 대하여, 인간의 품위 그 자체에 살인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식이었다. 왜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였을까?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경제개발, 수출전선에 나선 한국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천대받는 존재들이었다. 그녀들은 못 배웠고, 어렸으며, 가난했고, 촌뜨기였고, 게다가 여성이었다. 그런데 그녀들이 갑자기 제대로 선거하는 법을 배워 노조를 장악했다. 당시 국가권력, 회사, 섬유노조, 남성노동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이들을 탄압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갑자기 똑똑해지고, 자신감 있고, 지식의 근본적인 가치와 세상에 대해 자각해가는, 그리하여 세상의 중심에 진입해가는 그녀들을 보게 되었다. 유신체제하의 정치권력자와 기업주, 섬유노조의 간부들, 남성노동자들은 현격하게 달라진 그녀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 두렵기도 하고 열등감도 느꼈을 것이다. 그녀들이 보여준 지식 그 자체에 대한 열망과 애정, 여기서 열리는 더 근본적인 인간해방의 가능성을 두려워했기에, 한편으로 시기심이 발동하고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서, 그것을 절대로 보이지 않게 확실하게 가려야 했기에, 똥칠을 했던 것이다. ㉠

홍석률

현재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고 최근의 관심주제는 한반도 냉전사이다. 저서로 『통일논의와 정치사회적 갈등: 1953-1961』, 『분단의 히스테리: 공개문서로 본 미중관계와 한반도』가 있다.

- 001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권, 한올아카데미, 2001, 124~125쪽.
- 002 추송례, 「어김없이 봄은 오는가」, 전태일기념사업회 편, 『실업일기』, 미르인쇄, 2001, 35쪽, 37쪽;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12쪽, 17쪽;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동일방직 노동조합 운동사』, 1985, 돌베개, 240쪽.
- 003 추송례, 앞의 글, 37~38쪽; 석정남, 앞의 책, 16~17쪽.
- 004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앞의 책, 43쪽; 석정남, 앞의 책, 29쪽, 14~15쪽.
- 005 이옥지, 앞의 책, 131~132쪽, 135쪽.
- 006 위의 책, 135쪽;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여신학자연구반 편, 『고난의 현장에서 사랑의 불꽃으로—조화순 목사의 삶과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92, 88~89쪽.
- 007 『동아일보』 1972. 5. 16.
- 008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 이매진, 2005, 462쪽;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앞의 책, 33쪽.
- 009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여신학자연구반 편, 앞의 책, 78쪽; 석정남, 앞의 책, 25쪽;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앞의 책, 162쪽.
- 010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앞의 책, 36쪽;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여신학자연구반 편, 앞의 책, 100쪽.
- 011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5권, 지식마당, 414~422쪽; 이옥지, 앞의 책, 315~424쪽.
- 012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앞의 책, 54~59쪽; 추송례, 앞의 글, 47쪽.
- 013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앞의 책, 7쪽, 109쪽.
- 014 위의 책, 348쪽.
- 015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V, 국가정보원, 2007, 317~319쪽.
- 016 위의 책, 326쪽.
- 017 석정남, 앞의 책, 142~143쪽 참조.
- 018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여신학자연구반 편, 앞의 책, 78쪽; 석정남, 앞의 책, 25쪽.
- 019 『동아일보』 1972. 5. 16.
- 020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앞의 책, 42~43쪽.
- 021 추송례, 앞의 글, 42쪽; 박수정, 『여자, 노동을 말하다』, 이학사, 2013, 82쪽.
- 022 이옥지, 앞의 책, 399쪽.
- 023 추송례, 앞의 글 40쪽; 석정남, 앞의 책, 18쪽; 석정남, 「동일방직 사건 속에서의 ‘나’를 돌아보다」, 『동지회보』 1981년 7월호(동일방직복직위원회, 앞의 책, 367~370쪽 수

록).

024 김경일, 「1970년대 민주노동운동의 쟁점—여성과 지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겨울호, 2005.

025 박민나, 『가시철망 위의 넝쿨 장미』, 지식의 날개, 2004, 58~65쪽.

026 전순옥,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한겨레신문사, 2004, 323~328쪽.

027 석정남, 앞의 글, 1981.

028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여신학자연구반 편, 앞의 책, 80~81쪽, 286쪽.

029 석정남, 앞의 책, 143~145쪽.

030 박수정, 앞의 책, 92쪽.

illegal use of marijuana and adherence of their youth to Western culture could no longer be ignored. The government appeared to succeed in getting public approval for their repressive measures to control youth culture and their crackdown on the anti-Yushin student movement. In this regard, the marijuana incident contributed to harmonizing the problem of democracy with that of social custom.

Key Words: Marijuana incident; Yushin regime; youth culture; banned songs; emergency measures.

■ Dongil Textile Factory Incident in South Korea: Resistance of Female laborers and Knowledge

Seuk-ryule Hong

This paper re-evaluates the meaning of the resistance of female laborers in the Dongil textile factory, focusing on the developing awareness of their rights as laborers in society. What happened in the factory in late 1970s was notorious for the violent suppression of its labor movement, the female workers' naked demonstration and poop? terror. This kind of authorized terror illustrates how difficult it was to form a labor union with freedom and independence and to operate as a 'Democratic Union' under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which drove export-led economic development while retaining its anti-labor policy. Intellectual awareness and knowledge development of female laborers was achieved through the combined activities of a small group of labor unions and a missionary labor organizat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some implications and issues of knowledge development in the labor movement in relation to the liberation of oppressed people.

Key Words: Labor movement; female laborers; knowledge; Park Chung-hee regime; Democratic Union; Labor repression.

■ March for the loved: Turn of the critical sensitivity in 1980's

Jung Keunsik

There are so many turning points of social change in contemporary Korea. This paper